



부천 시온고등학교 학교숲

/경기도

경기도, 올해 '도시숲 조성' 427억 투입

264개 사업지에 37.5ha 규모

경기도가 올해 427억 원(도비 113억 원 포함)을 투입해 생활권 주변 공유지 등 264개 사업지에 총 37만5000㎡(37.5ha) 규모의 도시숲을 조성한다.

사업 대상은 ▲기후대응 도시숲 5개소 ▲가로숲길 21개소 ▲쌈지공원 37개소 ▲학교숲 14개소 ▲도시숲 리모델링 13개소 ▲도시숲길 정비 9개소 등이다.

기후대응 도시숲은 도심 폭염과 열섬 현상 완화, 탄소흡수 기능 강화를 목표로 5곳에 조성된다. 연천군에서는 경원선 폐철도 구간을 활용해 10만5000㎡ 규모로 조성 중이며 올해 완료될 예정이다.

가로숲길은 보행환경 개선과 기온 저

감을 위해 21개소에서 추진된다. 가평군 국도 75호선 2km 구간도 포함된다.

생활권 유휴지를 활용한 쌈지공원은 37개소다.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일원에는 1500㎡ 규모로 조성하고, 여주시 세종대왕면 일원에는 지역 생태와 지형을 반영한 맞춤형 공원을 만든다.

학교숲은 수원시 천천고, 용인시 초당중, 고양시 상탄초 등 14개 학교에 조성된다.

이와 함께 화성시 병점근린공원, 이천시 진안근린공원, 의왕시 포일숲속공원 등은 리모델링과 추가 식재로 기능을 보완하고, 노후 도시숲길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교육청, 학교 성고충 심의체계 통합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전면 이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를 학교 단위에서 교육청 중심 체계로 개편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학교 성고충 심의 체계 구축 및 운영 계획'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핵심은 기존 학교별로 운영되던 '학교 성고충 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전면 이관해 상급 심의체계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번 체계 개편은 정근식 교육감 취임 당시 약속한 '안심하는 서울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조치다.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교가 예방과 회복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예방-사안 처리-회복 지원-재발 방지로 이어지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학교에서 운영되던 성고충 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이관해 조사와 심의를 통합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학교 단위 심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전문성·객관성·비밀 유지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사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체계 개편은 학교 현장이 갈등 처리에 매몰되지 않고 예방과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성희롱·성폭력 대응이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사립학교 교사보호 공백 여전 교육청 "직접 조사 권한 없어"

'직장 내 괴롭힘' 조례 해석 분분 도움 요청에도 실질조치 어려워 교원단체 "사실관계 조사는 필요"

서울 사립초 교사가 학교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교육청은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립학교 교원 보호 공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몇 년 전 사립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교육청이 감사에 나선 사례가 있었지만, 여전히 사립학교 교원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소재 사립초등학교 교사 A씨는 학교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와 교육청 등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교육청에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접 징계권이 없어 민원이 자체 종결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인 조사 역시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공립 교사라면 교육청 감사나 조사 대상이 되겠지만 사립학교 교사는 '권한이 없다'는 답을 듣는다"며 "같은 교사인데 보호받는 제도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 공립은 교육청 조사… 사립은 재단이 사용자

공립학교 교사는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나 관리자 비위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서울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례 등에 따라 교육청 감사와 조사 대상이 된다.

반면 사립학교 교사는 근로기준법 적

용을 받는 학교법인 소속 근로자 신분으로 분류된다. 인사권과 징계권 역시 학교법인에 있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학교나 법인이 자체 조사를 진행하며, 관련 사건은 주로 고용노동부 절차로 처리된다.

사립학교 교사 보호 공백 문제는 이전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 관리자 상대 신고… 현장에선 "현실적 부담"

관리자와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학교 내부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구조여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신고 이후에도 같은 학교에서 근무를 이어가야 하는 점 때문에 관리자 상대 신고 자체가 큰 부담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교장은 인사와 보직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 교사가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다"며 "특히 사립학교는 내부 인사 구조가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신고 자체가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A씨 역시 진정서에서 담임 배정 제외와 보직 변경 등의 인사 조치가 괴롭힘과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사안은 현재 고용노동부 판단이 진행 중이며 사실관계에 대한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 교육청 "조례 적용 대상 아니다"… 사립 교사들은 반발

A씨는 학교장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며 교육청 '갑질 신고센터'에 민원을 접수했지만, "사립학교는 조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자체 종결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가

마련돼 있지만 사립학교 교원 사건에 대해 교육청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내부에서는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구분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안으로,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소속 근로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학교라고 해서 사안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직장 내 괴롭힘 이외) 다른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차원의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 업무 매뉴얼 정비와 조례 개정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교육청에 직접 징계권이 없더라도 최소한 사실관계 조사와 시정 요구는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정혜영 서울교사노조 대변인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르면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과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위법·부당한 사안이 있을 경우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교육청이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 자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학교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청이 최소한 사실관계 조사를 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사립학교 사건은 조사 자체를 하지 않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58 | 해질 / 18:29

3월 5일 (木)
음력 : 1월 17일

수도권 날씨
2 ~ 14°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백령도 1/6
연천 -4/12
동두천 -2/14
가평 -2/13
파주 -3/12
서울 2/14
양평 -1/15
인천 1/10
수원 1/13
용인 1/13
평택 0/14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LG AI 대학원, 석·박사 학위 과정 운영

교육비전 '최고 수준의 AI 인재 양성' 문제해결 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운영

LG경영개발원 AI연구원이 설치한 사내대학원인 'LG AI 대학원'이 4일 개원식을 열고 인공지능(AI) 분야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을 본격 시작한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LG AI 대학원'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근거해 기업이 교육부 인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형태의 국내 첫 사내대학원이다. 사내대학원을 졸업하면 일반 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받는다.

LG AI 대학원은 인공지능학과 석사 과정 25명, 박사 과정 5명 정원으로 운영된다. 교육 비전은 '도메인 지식과 A

LG AI 대학원
LG GRADUATE SCHOOL OF AI

I역량을 갖춘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인재 양성'으로 ▲산업 밀착형 AI 실무 인재 ▲글로벌 기술혁신을 선도할 AI 연구 리더 ▲AI 연구와 사업화를 연결하는 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수진은 산업계와 학계를 아우르는 융합형 체제다. 전임교원은 AI 연구 전문성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출신 연구

자와 산업 현장 경험을 가진 신진 연구자로 구성된다. 겸임교원은 엘지(LG)경영개발원 AI 연구원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실습 중심 과목과 연구 과제(프로젝트) 지도를 담당한다.

교육과정은 석사 과정의 경우 문제해결 중심 실무형 교육을 목표로 1년 과정 형태의 3학기 과정으로 운영된다. 박사 과정은 산업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법론을 개발하는 연구 리더 양성을 목표로 3년 이상 과업 과정으로 운영된다.

특히 박사 과정 졸업 요건에는 SCI(E)급 논문 1편 이상 게재 또는 세계 정상급 학술대회 발표가 포함돼 산업 현장과 학계 모두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역량을 요구한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 이란, 미 카타르 레이더 폭파 사진…FT “AI가 조작한 것”

▲ “‘보복공격 피해 집중’ UAE, 이란 미사일거지에 반격 검토”

/사진 뉴스스

▲ “법적 문제 없다”던 다카이치, 선물 논란에 태도 조정…“삼가고 싶다”

▲ 日, 총리 직속 정보기구 권한 대폭 강화…각료 9명 참여 회의 신설

▲ ‘기지 사용 거부’ 스페인, 美 무역중단 위협에 “국제법 준수해야”

▲ 中, IAEA서 일본 비판…“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인재”